

# 초원 위 오두막

Cabin on the Lawn

렌조 피아노가 가구제조사 Vitra를 위해 설계한 초소형 이동 주택



Julien Lanoo for Vitra

최근 건축사 렌조 피아노가 극강의 미니멀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김박한 자족공간은 “대단한 그 무언은 작은 상자에 온다”라는 옛 격언이 유효 하다는 것을 보여준다. 그 공간은 제노바 출신 건축사 렌조 피아노가 건축 제조사 ‘Vitra’ 를 위해 설계한 2000×2000 바닥 넓이를 가진 자급자족 오두막이다. 이 이동식 은둔공간은 지금껏 렌조 피아노의 사무실(Renzo Piano Building Workshop - RBPW)이 지금까지 전형적으로 맡아 설계해 왔던 일과는 사뭇 성격을 달리 한다. RBPW는 2012에 완공된 유럽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The Shard in London과 같은 큰 스케일의

건물들을 설계해 왔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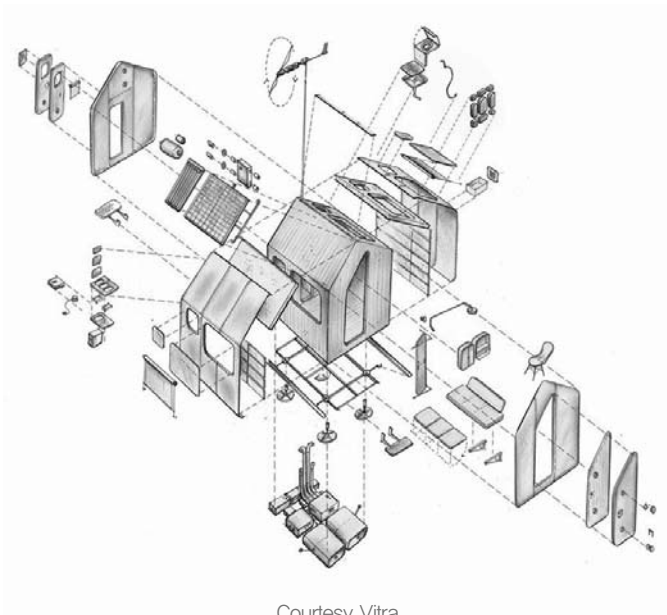
그런 렌조 피아노가 이번에는 단지 내부 장차 접이식 소파와 의자, 그리고 벽면 고정식 작은 테이블만이 포함된 오두막을 설계 하였다 - 그는 이 일을 십년 전, 의뢰 받은 일이 아닌 스스로 시작했었다. 그는 제노바 그의 사무실에서 몇 개의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보기도 했으나, Vitra의 의장 Rolf Fehlbaum이 2010 이 프로젝트를 알아내고 나서야 비로소 이 오두막이 제대로 훌륭히 정리 되어 실현 될 수 있게 되었다.



Julien Lanoo for Vitra

이 오두막은 나무 배럴통에 살며 가진 것이라곤 한사람 겨우 연명할 수 있을 만큼의 식량이 재산의 전부였던 고대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스의 이름을 따 디오게네스라 이름 지어졌다. 겉으로 보이기엔 이 오두막은 아주 깨끗하게 마무리한 디자인과 따뜻하게 느껴지는 나무 소재로 인테리어가 마감 되어 있어 단지 매끈하고 미니멀 해 보인다. 하지만 사실 겉으로 보기에 소박해 보이는 작은 공간은 자급자족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보이지 않은 곳에 복잡한 기계 시설들이 가득 차 있다.

렌조 피아노는 이 오두막을 위해 팀버 프레임을 사용했으며, 나무 마감 인테리어, 그리고 변화무쌍한 기후에 대응하기에 적합한 알루미늄 클래딩 시스템을 선택했다. 우수를 탱크에 모으고, 걸러서, 샤워와 주방용으로 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. 또한 바이오 화장실을 설치하여 정화조들의 설비와 비용, 환경을 고려하였으며, 태양광 집열판으로 생성한 전기로 온수와 난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.



Courtesy Vitra

지난 6월 이 오두막 한 채는 독일 Weil am Rhein의 Vitra 캠퍼스에 설치되었다. 이 오두막은 Herzog De Meuron이 설계하고 공공에게 개방된 VitraHaus 건너편 초원 위에 자리 잡고 있다. ㉮



Julien Lanoo for Vitra

\*윗 글은 The Architecture Newspaper의 기사 일부를 발췌, 인용, 번역 했습니다.